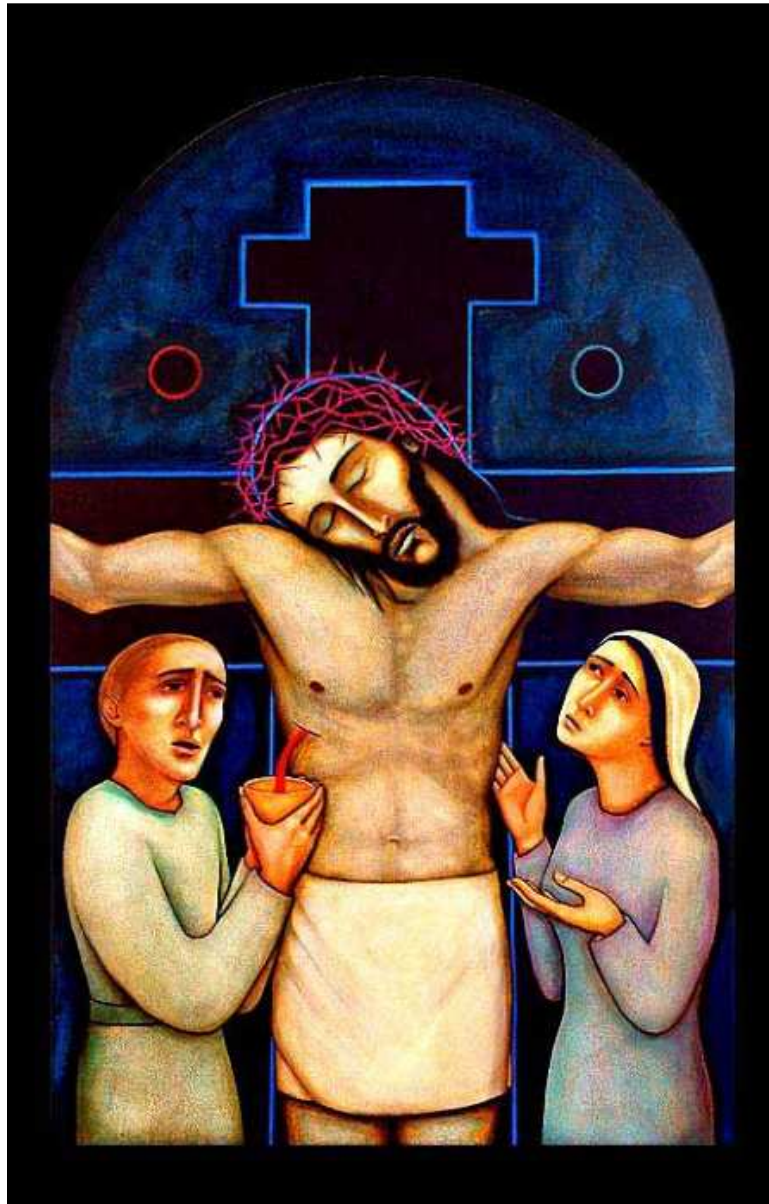


2013 6.23 연중 제 12 주일

제 1 독서 : 즈카르야 12,10-11;13,1 <그들은 자기들을 찌른이를 바라볼 것이다.>

제 2 독서 : 갈라티아서 3,26-29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복 음 : 루카 9,18-24 <예수님은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어야한다. .>



베이크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제 1 독서에서 즈카리야 예언자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소상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시고 어떻게 돌아가실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생명의 물이 샘솟아 은총의 성사를 이루고 하느님의 구원이 바로 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 이루어질것임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군중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제자들이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중의 한분이 살아나신것 이라고 합니다.**” 하며 예수님의 정체에 대하여 정확한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질문은 **바로 오늘 지금 이자리에서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질문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응답을 합니다. 과연 이 질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예수님은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진실되게 답을 드릴수 있는지? 한번 자신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구세주, 나의 구원자로서 고백**하고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모시고 산다면 우리의 일상 생활은 엄청나게 달라질것입니다. 오늘 미사후에 차동엽신부님의 저서 ‘**희망의 귀환**’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지난 피정중에 한자매님이 조별나눔을 발표 하시면서 이번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남기고 싶은것은 지혜서, 잠언과 집회서를 적어도 10 번은 꼭 읽어보게 하여야 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어쩌면 열번이야니라 그이상을 읽고 읽어서 내것으로 만들어 그렇게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에는어느때보다도 많은 정보가 넘쳐 흐릅니다. 오늘 나누어드리는 ‘희망의 귀환’ 에서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희망을 찾는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한번 읽고 그냥 끝내실것이 아니라 계속 읽고 읽어서 소가 여물을 씹고 또 씹고 되씹으면서 소화를 해 내듯이 우리도 책의 내용들을 계속 읽고 읽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그것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못할까요?** 왜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걸려 고통스럽게 살아야할까요? 제 삶을 돌아보면 저역시 우울증에 걸려 고통을 당한적이 있습니다. 한때 잘 나갔었고, 학교성적이나 재능으로 잘 대접 받았던 수도원을 나와 세상에 홀로 던져져 아무의 도움도 없이 그것도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유럽을 떠돌게 되면서, 그래서 제대로 취업도 할수 없었던 처지에 있었고, 한때는 자살자가 많기로 소문나 있는 바로 그 떼베강 옆에서 살면서 심한 우울증에 고통 당하였으면서도 제가 남들이 빠지는 자살의 유혹에서 벗어날수 있었던것은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심어주신 **하느님께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느님께 대한 신앙은 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무엇보다도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요즘 삶이 다들 어렵다고 하시지만 우리 중에 끼니를 굶으시는 분은 없습니다. 또한 잠자리에 지붕이 없는 분도 없으십니다. 살기가 고통스럽다, 힘이 들다, 죽고 싶다고 하시지만 이런 우울증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필요한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고통은 사실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연에는 뿌리깊은 자존심과 욕심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십시오. 욕심을 버리십시오. TV. 매스콤 책자들을 통해서 좋은 말씀들을 수없이 듣는데도 왜 나의 삶이 변하지 않을까요? 왜 내안에 고통들이 그대로 머물러 있을까요? **내 자신 안에 있는 불필요한 자존심, 지나친 욕심들을 내려 놓으십시오.**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고통은 나로 부터 옵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원인들이 우리 이웃에 있다고, 우리의 주변 여건 때문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안에 모든 원인이 있는 것이며, **진정한 행복은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 부활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나를 버리고 내가 가진 십자가를 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마태오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명예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명예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고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의 십자가를 질때에 고통은 기적적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내안에서 나는 작아지고 예수님은 커 지셔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영생의 삶,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 2 독서에서 사도 바오로가 갈라디아인들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안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더이상 유대인도, 그리스인도, 남자도, 여자도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자꾸만 나누려고 하는것은 마귀의 작난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도 더이상 한국인, 멕시코인, 미국인, 흑인, 백인, 아시안인등등 으로 나누어져서는 안됩니다. 우리 모두는 모두 하느님안에서 한 자녀들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볼 것이다(요한 19,37).>

즈카르야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12,10-11; 13,1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 주민들 위에 은총과 자비를 구하는 영을 부어 주겠다. 그리하여 그들은 나를, 곧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보며, 외아들을 잃고 곡하듯이 그를 위하여 곡하고, 맏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그를 위하여 슬피 울 것이다. 그날에 므기또 별판에서 하닷 림몬을 위하여 곡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도 곡소리가 크게 울릴 것이다. 그날에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 주민들의 죄와 부정을 씻어 줄 샘이 터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갈라티아서 말씀입니다. 3,26-29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그리스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18-24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그분께서 “군중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자, 베드로가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분부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어서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하고 이르셨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